

바쓰덱의 자기 제시에 드러나는 균열

최예정

『바쓰덱의 서시와 이야기』(*The Wife of Bath's Prologue & Tale*)를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의 다른 여러 이야기(tale)들과 비교해 볼 때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화자 자신의 자서전적 성격을 띠는 서시가 이야기보다 더 길다는 점이다. 이것은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바쓰덱의 이야기에 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다. 『면죄사의 서시』(*The Pardoner's Prologue*)도 상당히 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면죄사의 서시』는 462행이고 『면죄사의 이야기』(*The Pardoner's Tale*)는 506행으로 이야기 부분이 조금 더 길다. 또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바쓰덱과 면죄사 외에 긴 서시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는 성당 참사회원의 종자(Canon's Yeoman)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서시는 자서전적이라기 보다는 연금술사의 작태를 고발하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는 점에서 바쓰덱이나 면죄사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바쓰덱이나 면죄사의 서시에서는 그들 자신의 경험이 이야기의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쓰덱의 서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그녀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바쓰덱의 서시』가 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서시의 자서전 부분뿐 아니라 서시 전반부의 설교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나는 동정의 삶을 부러워 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말한다(95, 142). 또한 그녀는 “그(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완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111-2)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준 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는 까다롭지 않거든요”(146-7)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구절들은 ‘나’를 강조하는 바쓰덱의 특징적 면모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성직자들의 동정의 삶의 양식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동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도 않는다. 단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혼 문제에 관한 올바른 신학적 해석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변호하는 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¹⁾ ‘나’의 결심, ‘나’의 생활을 정당화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것이다.

이와 같이 바쓰덱이 서시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녀의 설명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믿음만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서시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녀의 표면적인 떠벌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의 기류가 감지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녀가 떠벌이는 내용 자체나 그 저의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다. 즉 그녀가 자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그 이면의 의미가 다르게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이며 그렇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본고의 주된 관심사이다.

『바쓰덱의 서시』가 청중들을 의식하고 자신의 말이 불러 일으킬 반응을 예상하면서 내용을 조정하는 공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서시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결혼관을 설교 형식으로 제시하는 부분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이 설교 부분에서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매우 도발적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졌는데, 왜 다섯 번째 남편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될 수 없는 거지요?” (21-22) “그분은 두 번 결혼하든, 여덟 번 결혼하든 결혼의 숫자에 대해 말씀하신 일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나무라는 거지요?” (32-34) “제발 부탁이니 어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디에서 그분께서 동정을 명하셨지요?” (61-62) 등등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바쓰덱의 질문과 도전적인 말투는 마치 바쓰덱의 주장이 성직자들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같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바쓰덱의 주장은 이단적이고 과격해보인다는 표면적인 인상과는 달리 그녀의 생각과 행동양식의 상당부분이 소위 ‘정통’이라고 불리우는 중세 학자들의 주석과 기존 교단의 설교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²⁾ 가령 바쓰덱은 결혼과 동정을 비교할 때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 1) Robert B. Burlin, *Chaucerian Fi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219. 이런 의미에서 Burlin은 *The Wife of Bath's Prologue*를 ‘심리적 픽션’이라고 부른다.
- 2) Douglas Wurtele, Andrew Galloway 등의 비평가들은 그녀의 주장이 기존교회외의 가르침의 전통속에 그 뿌리를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Douglas Wurtele, “Chaucer's *Canterbury Tales* and Nicholas of Lyre's *Postillae litteralis et moralis super tatam Bibliam*”; Ralph Hanna III, “Compilation and the Wife of Bath: Latin Backgrounds, Ricardian Texts,” in J.A. Minnis ed., *Latin and Vernacular: Studies in Late-Medieval Texts and Manuscripts* (Suffolk, GB: D.S. Brewer, 1989), 10; Andrew Galloway, “Marriage Sermons, Polemical Sermons, and *The Wife of Bath's Prologue*: A Generic Excursus,” *SAC* 14(1992), 3-30.

동정을 결혼보다 우위에 놓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 당대의 많은 정통적인 설교들이 혼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당대의 인기있고 권위있던 주석가 Nicholas of Lyre와 같은 학자는 결혼에 대해 사도 바울이 '대사' (indulgentia)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반대했다.³⁾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하여 부부생활이 제정될 때 그 부부관계에는 어떠한 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에 대해 대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까지 말하였다. 즉 바쓰덱은 공격적으로, 그리고 전복적인 인상까지 주면서 자신의 결혼관을 설파하지만 실제 그녀의 주장은 그 표면적인 인상과는 달리 그렇게 과격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바쓰덱은 그렇게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는가. 실제 그녀가 말하는 내용과 어조 사이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괴리는, 우선 그녀의 이야기가 일종의 공연적, 혹은 연극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그녀는 “경험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하지만 학자 나오리들께서 화를 내시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드리지요”(124-126)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어떻게 말하면 성직자들을 화나게 할지, 또 어떻게 말하면 그들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그녀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 성직자들이 못 견뎌할지를 뻔히 들여다보면서 말의 내용과 공격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그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의 존재를 철저히 의식하면서 자신의 경험담과 주장을 편집하고 있는 것이다.

『바쓰덱의 서시』의 연극적 성격은 바쓰덱이 그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자신을 일종의 배우처럼 성격을 규정하고 자신의 인생 경험을 그 성격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⁴⁾ 그녀의 자기 정체성, 혹은 자신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미지에 의해 이야기의 내용이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다.⁵⁾ 바쓰덱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는, 그녀가 어떻게 하면 남편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그녀가 “여러 현명

3) Wurtele, "Chaucer's *Canterbury Tales* and Nicholas of Lyre's *Postillae litteralis et moralis super totam Bibliam*," 105.

4) Lee Patterson, "'Experience woot well it is noight so': Marriage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n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in Peter G. Beidler ed., *Geoffrey Chaucer: The Wife of Bath, Case Studies in Contemporary Criticism* (Boston and New York: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 1996), 139.

5) H. Marshall Leicester, Jr., "'My bed was ful of verray blood': Subject, Dream, and Rape in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in Beidler ed., *Geoffrey Chaucer*, 249.

하신 부인네들이여”(225)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또 그녀는 “현명한 여자들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지요”(524)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다른 여성들과 동류의식을 느끼며 남성들과 대립되는 위치에 자신을 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순례객들 중에는 그녀 말고는 부인들은 없으며 수녀원장 등 여성들이 몇 명 더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남편다루는 법 따위의 지식을 공유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마치 다른 여성/부인 청중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그녀가 청중 남성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무엇보다도 여자, 혹은 부인으로 성격규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바쓰택이 자신을 다른 동료 순례객들처럼 자신의 직업에 따라 직공이나 옷감장수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상업 자본가로서 서서 곳곳에서 부르조와 특유의 상업적 사고방식이 내면화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다소 뜻밖의 일로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대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정의는 여성의 성(sexuality)에 의해 규정되었다는 Susan Crane의 다음의 설명은 바쓰택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이러한 의문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많다.

Whereas men have assigned functions to perform, women's duties derive from and relate to their sexuality. Women's statuses are typically those of virgin, nun, whore, maiden, wife, mother, and widow, replacing masculine functions on the social scene with the management of sexual status. Classifying women according to their sexual relations with men has on the one hand a component of gender equality: a woman's status in this system is closer to that of her man than to that of women and men at other strata in the system. At the same time, as the concept of a separate "fourth estate" indicates, women are alienated from the ideal of an interdependent society in that their sexuality tends to stand in for any socioeconomic function in defining them. For example, estates literature lists among women's duties obedience, chaste behaviour, care for husbands, and spinning or cloth making, but textile work in this context is a gendered trait rather than a profession.⁶⁾

6) Susan Crane, *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97-8.

다시 말하여 현대 독자들은 다른 남성 순례객들과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일에 의해 바쓰택의 사회적 신분을 직물업자로 규정하고, 또한 『바쓰택의 서시』에 그려진 바쓰택의 모습 속에서 그 직업에 걸맞는 신흥 부르주아의 상업적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되지만, 막상 바쓰택 자신은 스스로를 직물업자로 정의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여자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은 바쓰택이 당대의 지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바쓰택이 자신의 결혼관을 강력하고 개인적인 결혼 경험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상업 자본가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업 자본가라는 자의식이 그녀의 이야기의 편집방향을 바꾸어 놓는 일은 없다. 오히려 그녀의 결혼관과 결혼 경험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주된 편집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신이 남편들과 성직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남성들과는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 특히 결혼한 부인이라는 자기 정의이다.

바쓰택이 자신을 부인으로 정의하면서 특히 자신을 악처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그녀의 자기 정체성은 “내 자신이 체찍이었지요”(175)라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실상 『바쓰택의 서시』는 이러한 그녀의 자기 정의에 걸맞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가령 거짓말, 속이기는 여성이 가장 잘 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바쓰택은 자신이 첫 세 남편들에게 퍼부었던 말들이나, Jankyn을 유혹하기 위해 이야기한 꿈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한다. 또 넷째 남편과의 관계를 회고하는 장면에서는 자신이 그에게 연옥이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반여성주의적 풍자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남편을 괴롭히는 부인의 모습으로 제시한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은 부부간의 성까지도 “팔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특히 침대 위에서는 그들은 고생 꽤나 했지요.
 그저 시끄럽게 따지기만 하고 그들이 원하는 재미는 안 주었지요.
 그의 팔이 내 옆구리에 와 닿은 것을 느끼게 되면
 그가 내게 몸값을 지불할 때까지는
 침대 위로 가지를 앉았으니까요.
 돈을 받고 나서야 나는 그가 욕정을 채우는 것을 견뎌졌지요.
 그러니 난 모든 남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모든 것은 팔기 위한 것이니 누구라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구요.

빈 손으로 매를 피어 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이익을 위해 나는 그의 욕정을 참곤 했어요.
 그리고 성욕을 가장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나는 그 고깃 덩어리에서는 정말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
 니다.

Namely abedde hadden they meschaunce:
 Ther wolde I chide and do hem no plesaunce;
 I wolde no lenger in the bed abyde,
 If that I felte his arm over my syde,
 Til he had maad his raunson unto me;
 Thanne wolde I suffre hym do his nycetee.
 And therfore every man this tale I telle,
 Wynne whoso may, for al is for to selle;
 With empty hand men may none haukes lure.
 For wynning wolde I al his lust endure,
 And make me a feyned appetit;
 And yet in bacon hadde I nevere delit. (407-18)

바스닥은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몸값’ (raunson), ‘이익’ (wynning) ‘팔기’ (to selle) 등의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부부관계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서 자신이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조종했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실제로는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성욕을 느끼는 것처럼 ‘가장’했다고도 말하면서 부부관계에서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구절이 이러한 그녀의 떠벌임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나는 그가 욕정을 채우는 것을 견뎠지요”라는 말이나 “나는 그의 욕정을 참곤 했어요”라고 말할 때의 ‘suffre’ ‘endure’ 등의 단어들은 그녀가 “아 정말 밤마다 그들을 애 깨나 쓰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난답니다” (201-2)라고 호기있게 말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그녀는 결혼생활에서 특히 성생활에서 모든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었고 자신은 남편들에게 고통만을 주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녀의 회고담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스닥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많이 겪고 참아야 했음을 암시한다. 그녀의 떠벌임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가령 바스닥이 넷째 남편과의 관계를 회고하는 장면에서 더욱 강하게 대두된다. 그녀는 ‘나는 그에게 연옥이었다’ (489)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남편을 많이 괴롭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회고담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생활에서 정말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바스닥 자신이 아니었던가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떠오른다.

네 번째 남편은 난봉꾼이었어요.
 말하자면 정부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젊었고 바람끼가 다분했고
 고집도 세고 힘도 있고 까치같이 명랑했어요.
 달콤한 술 한잔만 들어가면,
 하프 소리에 맞추어 내가 얼마나 춤을 잘 추었는지,
 그리고 나이팅게일처럼 노래도 잘 불렀지요.

My fourthe housbonde was a revelour ...
 This is to seyn, he hadde a paramour ...
 And I was yong and ful of ragerye,
 Stibourn and strong, and joly as a pye.
 How koude I daunce to an harpe smale,
 And synge, ywis, as any nyghtyngale,
 Whan I had dronke a draughte of sweete wyn! (453-9)

바스닥은 네 번째 남편이 난봉꾼이었으며 그에게는 정부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이 이야기를 한 후, 그녀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건대 독자들이 그녀에게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그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젊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심리에 대해 많은 추측을 하게 만든다. 이것이 그녀의 네 번째 결혼이었음을 상기한다면 그녀가 아무리 젊었다고 한들 『무역상의 이야기』(*The Merchant's Tale*)의 May처럼 어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그녀가 젊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정말 젊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젊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넷째 남편에게 정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후 자신이 젊었다고 강조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달래고자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녀가 젊은 시절을 회고할 때마다 나오는 감각적이고 시적이기까지 한 언어들만 사라져가는 젊음을 안타까와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듯하다. 또한 그녀가 춤추고 노래했었

다는 것은 네 번째 남편에 애인이 있다는 데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달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게 만든다.

또한 바쓰택은 네 번째 남편이 애인을 가진 것을 똑같은 수법으로 '되갚음' (quit)해 주었다고 말한다. (481-4) 그녀는 자신이 바람피운 것처럼 믿도록 거짓말을 해서 남편이 질투심으로 꿩게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T.L. Burton이 지적하고 있듯이 하나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말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그녀가 믿고싶어 하듯 그녀가 받은 괴로움과 그녀가 끼친 괴로움이 같으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⁷⁾ 오히려 실제로는 간통을 범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런척 꾸며낸다는 것은 네번째 남편이 다른 애인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에 입힌 상처를 감추고자 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즉 그녀의 회고담 속에는 그녀가 떠벌이는 모습, 그녀가 의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바쓰택이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들을 무척 괴롭혔다는 것이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녀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악처로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쓰택이 자신을 이와 같이 남편을 괴롭히는 부인의 모습으로 제시할 때에 그것은 단지 연기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 자신도 자신이 악처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것일까. 바쓰택 자신도 스스로의 심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는지 모른다는 가능성은 그녀가 Jankyn을 유혹하기 위해 꾸며냈다고 말하는 꿈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나는 그가 나를 홀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요.
어머니가 나에게 그런 피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또 밤새도록 그의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나는 반듯이 누워 있고 그는 나를 죽이려고 했으며
내 침대에는 진짜 피가 흥건했다고 말했어요.

7) 바쓰택이 넷째 남편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남편이 다른 애인을 가진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보는 대표적인 비평가는 다음과 같다. Gloria K. Shapiro, "Dame Alice as Deceptive Narrator," *The Chaucer Review* 6(1971), 132-5; T.L. Burton, "The Wife of Bath's Fourth and Fifth Husbands and Her Ideal Sixth: The Growth of a Marital Philosophy," *The Chaucer Review* 13(1978), 34-50; H. Marshall Leicester Jr., *The Disenchanted Self: Representing the Subject in the Canterbury Tales* (Berkeley, LA,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90-92.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이롭게 해주리라 생각해요,
다들 피는 황금을 뜻한다고들 말하지 않아요’ 라고도 말했지요.

I bar hym on honde he hadde enchanted me ...
My dame taughte me that soutiltee ...
And eek I seyde I mette of hym al nyght,
He wolde han slayn me as I lay upright,
And al my bed was ful of verray blood;
‘But yet I hope that ye shal do me good,
For blood bitokeneth gold, as me was taught.’ (575-81)

바쓰택은 “나는 그가 나를 홀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요”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로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 준 꾀”를 따라 Jankyn을 유혹하기 위하여 그를 속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말 그녀가 그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꿈을 꾸었으면서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사실 꿈 이야기를 둘러싼 정황에 대한 바쓰택의 설명은 분명치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넷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들로 산책하며 농탕질을 했던 남자가 그의 다섯 번째 남편 Jankyn과 동일 인물인지, 또 네 번째 남편의 장례식때 Jankyn의 “깨끗하고 미끈한 다리”를 보고 반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꿈 이야기를 한 것은 네 번째 남편이 죽기 전인지 아니면 죽은 후인지, 그리고 바쓰택이 Jankyn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꿈을 진짜로 꾸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혹시 진짜로 그 꿈을 꾸었으면서도 안 꾸었다고 스스로 믿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의문 투성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는 것은 그녀가 지어냈다고 말하는 꿈의 내용이다. 이때의 그녀의 꿈의 내용은 결혼에 대한 그녀의 이율배반적인 기대를 드러낸다. 바쓰택의 꿈은 표면적으로는 “왜냐하면 피는 금을 뜻하기 때문이지”라는 구절에서도 보이듯이 결혼의 계약관계를 둘러싼 ‘성의 경제학’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H. Marshall Leicester는 바쓰택이 처음 결혼할 때 그녀의 어머니가 처녀성이 돈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January와 May, 더 가깝게는 바쓰택 자신이 열두 살에 노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오고갔을 처녀성과 재산의 교환관계가 그녀의 꿈 속에서 재현되는 것 같기도 하다.⁸⁾ 그러나 Jankyn과 바쓰택의 관계에서는, 바쓰택이 Jankyn에게 줄 수 있는 처녀성이란 남아있지 않고, 또

Jankyn이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녀의 '몸'과 '재산' 모두를 Jankyn에게 바쳤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그녀의 꿈은 그녀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녀가 꿈꾸던 결혼의 모습을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꿈 속의 침대에 가득한 피는 Jankyn과 결혼할 때 40세였던 바쓰덱이 20세의 젊은 총각과의 결혼을 그리면서 자신을 순결을 바치는 청순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그녀의 꿈이 결국 강간을 뜻한다는 것은 바쓰덱이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가 모든 것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겉으로는 주장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자신을 죽여 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편 '죽인다'는 표현이 성관계를 뜻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녀는 January와 May의 관계를 역으로 뒤집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미끼로 Jankyn의 젊음을 사고 싶어하는 한다는 것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다. Jankyn과의 결혼을 꿈꾸는 바쓰덱의 꿈 안에는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상반된 욕구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젊음을 상실한 채 젊은 기사를 남편감으로 맞아들이는 노파(old hag)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적 쾌락을 강조하던 당대 민간에 유행하던 '쾌락 설교'(sermon joyeux) 속의 인물처럼 보이기도하고⁹⁾ 한편으로는 돈과 육적인 것을 탐하는 세속적 육욕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다.¹⁰⁾ 그러면서도 또한 그녀는 순수의 꿈을 잃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을 환상으로 대치시키거나 미화시키려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여 그녀의 꿈은 스스로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반된 욕구들이 그녀의 심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바쓰덱이 그토록 주장하는 지배권의 실체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그녀의 표면적인 주장과 그녀의 내면의 욕구와의 관계를 밝혀 주는 한가지 열쇠가 된다. 바쓰덱이 그녀의 첫 세 남편들과의 관계를 회고하

8) Leicester, *The Disenchanted Self: Representing the Subject in the Canterbury Tales*, 102.

9) Lee Patterson, "For the Wyves Love of Bathe: Feminine Rhetoric and Poetic Resolution in the *Roman de la Rose* and the *Canterbury Tales*," *Speculum* 58(1983), 674-78.

10) D.W. Robertson Jr., *A Preface to Chaucer: Studies in Medieval Perspectiv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318; cf) Graham de Caie, "The Significance of the Early Chaucer Manuscript Glosses(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Wife of Bath's Prologue*)," *The Chaucer Review* 10(1976), 350-60; Sarah Disbrow, "The Wife of Bath's Old Wives' Tale," *SAC* 8(1986), 59-71.

는 장면을 살펴보면 그녀는 지배권의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로 여성의 경제권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자신이 경제권을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 싸웠는지, 그리고 성을 미끼로 남편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어냈는지를 말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들과의 결혼생활에서 지배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그녀의 말의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 그녀는 싸워서 순간 순간 지배권을 쟁취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계속 소리 높여 남편과 싸워야 했고, 비록 그녀가 어느 정도의 재산권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다. 게다가 그 정도의 권리라도 얻으려면 그녀와 질녀까지 증인으로 끌어들여 가면서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즉 그녀의 삶은 지배권을 획득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의 과정이었다.

바쓰댁의 표면적인 떠벌임과 실상과의 괴리는 다섯 번째 남편 Jankyn과의 관계를 회고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 가령 그녀는 Jankyn이 밤낮으로 못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고 설교를 일삼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였어요. 나는 그가 하는 옛 이야기며 속담에는 눈썹만큼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가 말한다고 해서 내 행실을 고칠 생각도 없었지요”(659-661)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은 Jankyn의 이야기에 아무 영향도 받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떠벌인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구절은 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전달한다. 그녀는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싫어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662-663)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바쓰댁이 자기처럼 사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반문하지 않고 “나의 잘못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싫다”고 말한다는 것은, 바쓰댁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라고 마음 속으로는 자인하고 있으며, 또 Jankyn의 이야기 속의 여주인공들과 자신을 은연중에 동일시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즉 그녀는 Jankyn의 이야기에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Jankyn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의 이야기를 못 견뎠던 것이다.

바쓰댁의 심리의 이러한 이중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그녀의 다음 발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말이지 여자 성인들의 얘기라면 모를까,
 그 외 여자들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칭찬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사자를 그린 사람이 누구지요? 어디 말씀해 보세요, 누구지요?
 제기랄, 만약 여자들도 학자들이 글방에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 낼 수 있었다면
 아담의 후손들이 다 달려들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남자들의 갖가지 사악함에 대해 썼을 텐데.

For trusteth wel, it is an impossible
 That any clerk wol speke good of wyves,
 But if it be of hooly seints lyves,
 Ne of noon oother womman never the mo.
 Who peyntede the leon, tel me who?
 By God, if wommen hadde writen stories,
 As clerkes han withiine hire oratories,
 They wolde han writen of men moore wikkednesse
 Than al the mark of Adam may redresse. (688-96)

여기에서 바쓰데크는 성직자들 역시 사자를 그린 화가처럼 편향성을 가지고 글을 썼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가르침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따지고 드는 듯한 도전적인 어조로 표현한다.¹¹⁾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이들의 가르침이 매우 편견에 가득차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대치할만한 다른 '화가,' 다른 '그림'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녀의 느낌을 정확히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여자 학자도 없고 남자들의 사악함을 읊는 글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바쓰데크의 자기 정체성의 혼란, 혹은 이중적인 자기 정의는 그녀가 회귀하는 이상적인 결혼생활의 모습에서도 다시금 드러난다. 가령 바쓰데크는 Jankyn과 치열하게 싸우고 나서, 그가 그녀에게 “나의 진실한 부인 앨리스, 이제 일생동안 당신이 하고싶은대로 하구려, 당신의 명예도 지키고 내 위신도 지켜줘요.” (819-21)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지배권을 양도한

11) Mary Carruthers, "The Wife of Bath and the Painting of Lions," *PMLA* 94(1979), 209.

후에는 다시는 싸움도 없었고 그녀는 가장 친절하고 진실된 부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결말부는 여러 가지 점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 우선 그녀가 어떤 경로를 통해 Jankyn에게서 지배권을 넘겨 받았는지가 매우 불투명하다. 그녀는 “무척 애를 쓰고 고통을 겪은 후에 우리 둘은 합의를 보았지요”(811-812)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막상 그녀가 그토록 소원하던 지배권을 획득하는 그 순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녀의 평소의 다변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상스럽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그녀가 지배권을 획득한 후의 삶을 회고하는 부분도 몇가지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가령 그녀는 원하던 지배권을 얻어서 이제 행복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이후로는 더 이상 싸우지도 않았고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진실된 부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당대 담론에서 가르치는 가장 이상적인 부인의 모습으로 재포장하려 하는 것일까. 더구나 그녀는 『서시』의 말미를 자신의 남편의 영혼에 축복해달라는 기도로 맺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Jankyn이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을 강하게 전달한다.¹²⁾ 이 결말부는 현실 속의 그녀의 결혼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로맨스적인 결말로써, 현실 속의 이야기가 아닌 단지 그녀의 희망사항, 혹은 이러한 생활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결말부는 그녀가 궁극적으로 결혼에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결론내리기를 참으로 어렵게 만든다.

결혼에 대한 바쓰택의 이중적 태도는 그녀가 말하는 『이야기』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Helen Cooper는 “초서는 바쓰택이 로맨스를 말하도록 함으로써 그녀의 성격에 또 다른 면을 부여한다. 다시 말하여 그녀는 구제하기 어려운 정도로 낭만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쓰택의 서시와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성격간의 관계를 잘 요약한다.¹³⁾ 사실상 『바쓰택의 이야기』는 전체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도 화자의 내밀한 심리가 그 이야기

12) 바쓰택은 네 번째 남편의 죽음을 회고하는 장면을 “네번째 남편이여 안녕,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기를”(501)이라는 말로 맺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섯 번째 남편에 대한 회고 장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504)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전의 구절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이전에 나오는 이런 구절은 Jankyn이 이미 죽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도 바쓰택은 Jankyn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기원의 말을 또 다시 한다. (525)

13) Helen Cooper, *The Oxford Guides to Chaucer: The Canterbury Tales*, Oxford: Clarendon Press, 1989, 156.

의 형성과 해석에서 특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이야기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쓰택의 서시와 이야기』는 공공연하게는 여성이 결혼에서 얼마나 지배권을 갖기를 원하는가를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결혼의 행복의 이야기로 끝나는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특히 『바쓰택의 이야기』는 성적 행복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녀의 심리에 대해 말해주는 바가 많다.

결혼에 대한 바쓰택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바쓰택의 이야기』를, 그것과 유사한 로맨스들, 가령, John Gower의 『연인의 고백』(*Confessio Amantis*)에 나오는 「플로렌트 이야기」(*Tale of Florent*)나 『가웨인 경과 래그넬 아가씨의 결혼』(*The Wedding of Sir Gawain and Dame Ragnell*)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유사한 이야기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쓰택의 이야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립구조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Gower의 이야기에서는 기사가 사형선고를 받는 이유가 범 죄때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때문이었고 『가웨인 경과 래그넬 아가씨의 결혼』에서 Gawain이 흉칙한 여인(loathly lady)과 결혼하는 것은 아더왕의 생명이 걸려 있을 때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런데 『바쓰택의 이야기』에서는 기사는 여성을 겁탈한 것으로, 또 기사가 흉칙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대가인 것으로 제시된다. 또한 Gower의 이야기에서는 기사에게 시험을 부과하는 사람이 기사가 죽인 여성의 할머니로 제시되고, 『가웨인 경과 래그넬 아가씨의 결혼』에서는 그 노파와 남매간인 기사가 심판을 부과하는 사람으로 제시되는 반면 『바쓰택의 이야기』에서는 기사를 심판하고 그에게 시험을 부과하는 사람들은 여왕과 그녀가 이끄는 여성들이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을 대립구도로 놓는 것은 『바쓰택의 서시』의 표면적 구도와 매우 흡사하다.

특히 지배권의 양도 부분은 『바쓰택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들(analogues)과의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 여성의 지배권에 대한 『서시』에서의 그녀의 주장을 다시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유사한 이야기들에서 남자 주인공들이 여성에게 지배권을 주는 것은 여성들을 그들의 계모의 주술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여 여성 주인공들이 지배권을 원하는 것은 그들이 결혼 생활 중에 정말로 지배권을 누리 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단지 그것이 그들을 마법에서 구해내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쓰택의 이야기』에서는 노파가 왜 추한 모습 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더구나 그 노파가 누군가의

주술에 의해 추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녀는 『바스택의 이야기』 서두에 나타났던 요정 여왕으로서 외모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 것처럼 보인다. 즉 기사가 노파에게 지배권을 양도하는 것은 흉칙한 여인을 구원해주는 행위가 아니라 여성으로부터 삶의 지배권을 빼앗는 극단적인 행위인 겁탈이라는 범죄를 행했던 자신의 삶의 양식을 교정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바스택의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들과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대목인 기사의 마지막 선택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유사한 이야기들에서는 낮에 예쁘고 밤에 추할 것인가, 혹은 밤에 예쁘고 낮에 추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어졌다. 이것은 주로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의 성(sexuality)을 다룰 때에 내재한 모순을 폭로하는 효과만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 선택 문제는, 여성의 성은 남성의 소유물이므로 여성의 정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면서도 여성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되지 못한다면 남성의 소유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이중적 기대를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가웨인 경과 래그넬 아가씨의 결혼』에서의 Gawain의 다음 발언은 감추어진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 아니며, 또한 아름다움이 없는 상태에서의 정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⁴⁾

당신이 밤에만 아름답고 더 이상은 아니라면
그것은 내 마음을 무척 아프게 한다오,
그리고 나는 명예도 갖지 못할 것이요.

To haue you fayre on nyghtes and no more,
That wold greve me hartt ryghte sore,
And my worshypp shold I lese. (670-2)

즉 부인의 아름다움은 단지 그녀의 매력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기 보다는 남성의 소유물로서 남성의 명예를 이루는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한편 『바스택의 이야기』에서는 선택 게임의 문제가 다른 식으로 주어진다. 즉 늙고 추하면서도 진실되고 겸손한 부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젊고

14) Laurie Finke, "All is for to selle": Breeding Capital in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in Beidler ed., *Geoffrey Chaucer*, 185-6.

아름답기는 하지만 진실되지 못한 부인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뀐 것인데, 이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는 앞의 유사한 이야기들과 비슷하지만 그 함축하는 의미는 꽤 다르다. 우선 유사한 이야기들에서는 철저히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성적 매력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바쓰댁의 이야기에 오면 여성의 성적 매력과 여성의 내적 덕목 간의 선택의 문제로 바뀌어 버린다. 물론 이러한 질문은 여성의 성적 매력과 진실성, 겸손함과 같은 여성의 덕목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전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지독한 여성혐오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이야기들에서는 여성의 내적 가치의 문제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반면 바쓰댁의 이야기에서는 여성의 덕목이 선택의 한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선택이란 이익 계산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가치관의 선택의 문제로 바뀌어 버린다.

『바쓰댁의 이야기』에서 던져진 이러한 질문은 사실상 이 이야기 속에서의 기사의 교육 효과를 점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일차적으로는 이 질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해답, 즉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배권이라는 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사는 정답을 말했고 그에 따라 노파가 젊고 아름다운 부인으로 변하는 기적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에는 어딘가 꺼림칙한 점이 남아 있다. 우선 기사가 방금 전에 노파로부터 들었던 ‘고결성’ (gentillesse)에 대한 설교와 비교해보면, 기사가 ‘젊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진실되지 못한 부인’이라는 선택대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노파의 베켓머리 강의를 마음깊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노파가 가난하고 혈통이 비천하며 늙고 추하다는 기사의 불평에 대해 노파는 고결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난의 미덕과 늙고 추한 것의 이익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선뜻 늙고 추하면서도 진실되고 겸손한 부인을 택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부분적으로는 교육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쓰댁의 이야기』에서는 기사는 이것 때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보상을 받는 셈이다.

『바쓰댁의 이야기』의 결말부는 여성의 성적 매력에 대한 기사의 이러한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여기서 바쓰댁은 기사가 노파

에게 지배권을 양도하고 그 증표로 입맞춤을 하자 노파는 아름답게 변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기사가 정말 그녀를 다시 보았더니
 그녀가 그렇게 예쁘고 게다가 젊었답니다.
 기쁨에 겨워 그는 두 팔로 그녀를 껴안았고
 그의 마음은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몇번이나 그녀에게 입 맞추었고
 그녀는 그를 즐겁게 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그에게 순종하였답니다.

And whan the knyght saugh verraily al this,
 That she so fair was, and so yong therto,
 For joye he hente hire in his armes two.
 His herte bathed in a bath of blisse.
 A thousand tyme a-rewe he gan hir kisse,
 And she obeyed hym in every thyng
 That myghte doon hym plesance or likyng. (1250-1256)

이 구절에서는 재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즉 지배권을 아내에게 넘겨주면 바스닥이 『서시』에서 주장했듯이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행동하면서 남편이 아내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아내 쪽이 아니라 남편 쪽이 되는 것이다. 바스닥은 “그녀는 그를 즐겁게 하거나 그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모든 일에 그에게 순종하였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를 즐겁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내가 당신의 속된 욕망을 풀어드리리다.”(1217-8)라는 말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주로 남성이 원하는 성적 기쁨을 뜻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배권 양도행위는 남성이 가장 원했던 것을 제공하는 발판이 되는 셈으로써 애초에 노파가 선택 게임을 했을 때 던진 문제에 내포되어있던 가치관의 문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남성의 욕구만이 전면에 남고 그 욕구가 완벽하게 충족된 상태만이 그려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내의 지배권을 주장하는 바스닥의 원래의 의도와는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바스닥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다. 그녀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완전한 기쁨 속에 살았답니다”라고 이들의 이야기를 끝맺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이들의 삶간의 괴리를 의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가 의식하는 것은 이들의 ‘이상적’인 삶과 ‘현실’ 속의 자신의 삶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이다.

『바쓰택의 이야기』 속의 노파는 외적 특징이 아니라 내적 덕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설교를 하기는 하면서도 막상 결혼 생활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성적 매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기에 그녀는 기사가 늙고 추하면서도 진실되고 겸손한 부인 쪽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하지 않고 그녀 스스로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함으로써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 속의 바쓰택은 어떠한가. ‘사랑의 묘책’을 잘 알고 있는 그녀(*Gen Prol* 475) 역시 이야기 속의 노파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부인에게서 성적 매력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노파와 같은 변신의 재주는 없다. 꽃은 지고 자신에게는 왕겨(*bren*)밖에 남은 것이 없다. (477-8) 그녀는 이야기 속의 노파처럼 남자가 결혼 생활에서 여성의 성적 매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또한 자신이 그러한 매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 셈이다. 비록 그녀는 “하지만 나는 남은 인생에서도 재미를 찾아 볼거예요” (479)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섯 번째 남편이여 어서 오라” (45)하면서 호기를 부리기도 하지만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 되면서 겪는 향수와 안타까움은 그 안타까움을 숨기고 싶은 욕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자신의 변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녀는 ‘떠벌임’이라는 형식으로 자신과 청중을 동시에 속이려고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바쓰택에게 있어서 로맨스는 환상의 세계로서 그녀의 도피처이다. 그녀는 노파의 변신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환상의 세계일 뿐이다. 현실과 환상과의 거리,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모습과 실제의 그녀의 모습과의 차이를 그녀는 또다시 의식하게 된다. 바쓰택이 말하는 로맨스의 결말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결혼의 행복, 이상적인 결혼생활, 남편의 지배권 양도행위,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는 바쓰택의 머리 속에서는 분리불가능한 개념들이다. 그런데 바쓰택 자신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가 될 수 없다. 이상은 현실과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다. 바쓰택이 이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녀는 또 다시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 고향을 지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유순하고 젊고, 또 잠자리에서는 생기있는 남편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소서, 아올

러 우리가 남편보다 오래 살 수 있게 해 주소서. 또한 비오니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는 남편들의 생명은 단축시켜 주시고, 늙고 화만 내며 돈 쓰는데 인색한 남편들에게는 어서 속히 염병을 보내 주소서.”(1258-1264) 이 기도야말로 그녀의 떠벌임과 소란스러움, 그리고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언사가 근본적으로는 그녀의 약함, 불리한 상황을 숨겨 보려는 연극적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Burlin, Robert B., *Chaucerian Fi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Burton, T.L.. “The Wife of Bath’s Fourth and Fifth Husbands and Her Ideal Sixth: The Growth of a Martial Philosophy,” *The Chaucer Review* 13 (1978) 34-50.
- Caie, Graham de. “The Significance of the Early Manuscript Gloss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Wife of Bath’s Prologue)” *The Chaucer Review* 10 (1976) 350-360.
- Carruthers, Mary. “The Wife of Bath and the Painting of Lions,” *PMLA* 94 (1979) 209-222.
- Cooper, Helen. *The Oxford Guides to Chaucer: The Canterbury Tales*, Oxford: Clarendon Press, 1989.
- Crane, Susan. *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Disbrow, Sarah. “The Wife of Bath’s Old Wives’ Tale,” *Studies in the Age of Chaucer* 8 (1986) 59-71.
- Finke, Laurie. ““All is for to selle”: Breeding Capital in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in Peter G. Beidler ed. *Geoffrey Chaucer: The Wife of Bath*, Case Studies in Contemporary Criticism, Boston and New York: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 1996.
- Galloway, Andrew. “Marriage Sermons, Polemical Sermons and *the Wife of Bath’s Prologue*: A Generic Excursus,” *Studies in the Ages of Chaucer* 14 (1992) 3-30.
- Hanna III, Ralph. “Compilation and the Wife of Bath: Latin Backgrounds,

- Ricardian Texts” in J.A. Minnis ed. *Latin and Vernacular: Studies in Late-Medieval Texts and Manuscripts*. Suffolk, GB: D. S. Brewer, 1989.
- Leicester Jr., H. Marshall. *The Disenchanted Self: Representing the Subject in the Canterbury Tales*. Berkeley, LA, Oxfor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_____ “My bed was ful of verray blood”: Subject, Dream, and Rape in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in Peter G. Beidler ed. *Geoffrey Chaucer: The Wife of Bath*. Case Studies in Contemporary Criticism, Boston and New York: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 1996.
- Patterson, Lee. “For the Wyves Love of Bath: Feminine Rhetoric and Poetic Resolution in *the Roman de la Rose and the Canterbury Tales*,” *Speculum* 58 (1983) 656-695.
- _____ “Experience woot well it is noight so”: Marriage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n *the Wife of Bath’s Prologue and Tale*” in Peter G. Beidler ed. *Geoffrey Chaucer: The Wife of Bath*. Case Studies in Contemporary Criticism, Boston and New York: Bedford Books of St. Martin’s Press, 1996.
- Robertson Jr., D.W.. *A Preface to Chaucer: Studies in Medieval Perspectiv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Shapiro, Gloria K.. “Dame Alice as Deceptive Narrator,” *The Chaucer Review* 6 (1971) 130-141.
- Shepherd, Stephen H.A. ed.. *A Norton Critical Edition: Middle English Romances*. New York: Norton, 1995.
- Wurtele, Douglas. “Chaucer’s Canterbury Tales and Nichoas of Lyre’s *Postillae litteralis et moralis super tatam Bibliam*” in David Lyle Jeffrey ed. *Chaucer and Scriptural Tradition*. Ottawa: University of Ottawa Press, 1984.